



원산여성의용소방대 · 119시민안전위, 반찬봉사

전주원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송미숙)와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회장 김성희)는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5세대를 찾아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정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 이날 반찬봉사에서 참석자들은 직접 만든 반찬뿐만 아니라 기초소방시설 및 화상집, 라면 등 생활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김성희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숙 대장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활동으로 꾸준히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2일 동북유치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119신고요령, 화재 대피 요령 및 훈련,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이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어린이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협 전북지부, 지구의 날 '건강환경 가꾸기' 행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부부장 정규일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주농협공판장 앞 삼천(川)에서 '베디체크 건강환경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건협은 지난 2013년부터 '베디체크 건강환경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전국 주요 하천 유역에 탄소흡수 등 수질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노랑꽃창포를 심고관리해왔으며, 올해 추가 식재 예정인 5,200본 포함 총 17만 7,200본을 누적 식재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실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현기)는 지난 22일 자원봉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우수봉사자 소양교육과 김제시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 실시된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명사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김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은 재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재난대응에 맞춘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으로 이뤄졌다. /김제=곽태 기자

"돌봄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서서학동, 민·관 협력형 통합돌봄회의 개최

전주시 서서학동(동장 전아미)은 지난 22일 지역 돌봄 기관에서 활동 중인 민간위원들과 함께 통합돌봄회의를 개최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80여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통합돌봄회의는 돌봄 필요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협력하는 등 단위 사회회의체다. 맞춤형돌봄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종사하는 6명의 돌봄 민간위원과 간호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돼 있으며, 서서학동 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사회회의를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 이번 통합돌봄회의에서는 4명의 돌봄대상자에 대한 사례검토와 함께 향후 서서학동 통합돌봄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으며, 월 2회 사회회의 개최를 정례화했다. 전아미 서서학동장은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살기 어려워도 본인이 원한다면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돌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회했다. 전아미 서서학동장은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살기 어려워도 본인이 원한다면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돌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교육 · 상담 지원 인기

남원시에서 지난 3월 시작해 오는 12월까지(10개월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은 30명 모집에 관내 귀농·귀촌인 및 예비자가 41명 접수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지난 3월 10일 이백면농업인 상생플랫폼에서 성황리에 운영을 시작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법률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2회(격주 1회), 총 36차시에 걸쳐 농지·농산물거래·주택 등 이륜 강의, Case Study, 도전 골든벨 생활법률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상담도 예약상담시스템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주거·농지 매매 및 임대, 세무 건축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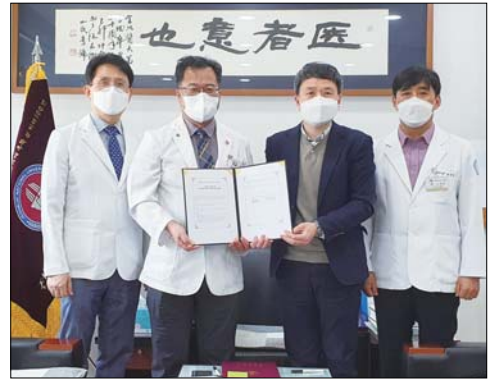
거·농지 매매 및 임대, 세무 건축 등을)을 해소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림문화 체험활동제공 협약 체결

남원시는 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지리산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혜진)와 산림복지전문업체인 지리산용유담 이야기(대표 김광용)가 지난 18일 정기적으로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산림문화 체험활동 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르신 100여명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진행 예정인 본 프로그램은, 지리산권 4개 읍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감이 높은 10~15명과 인근 숲을 활용해 진행되며, 지리산용유담이야기 측에서는 강사와 체험활동을,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식사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몇년 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외출 등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고 고독감과 우울감이 고조되어 있던 어르신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일상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며, 지리산노인복지센터는 지리산권 4개 읍면지역(산내, 안월, 아영, 운봉) 78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의대, 학생 정신건강 검사 · 상담 협약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임석태)이 최명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원장 최명수·의대 22회 동문)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대는 지난 22일 학장실에서 임석태 학장과 최명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의대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최명수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한 최명수정신건강의학과는 전북대 의대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강연과 의대가 요청한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검사,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의학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김근상 의대 교무부학과장 정영준 학생부학과장이 참석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무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전북대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정신적 장애요소를 조기에 발견·치유해 의학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장은성기자



순창자봉센터, 어르신 도배 · 장판 교체 봉사활동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지난 21일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삼치면 석현마을과 북동면 신기마을을 찾아 도배장판 교체 재능기부와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배지와 장판이 낡고 찢어져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을 도와 인락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배장판 교체 전문봉사자들이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 10여명은 마당 한쪽에서는 도배지와 장판을 재단하고, 집안에서는 청소 및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하는 등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모두가 자원봉사에 열성을 다하여 참여해 따뜻함을 더했다. 김삼순 소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 봉사의 손길이 순창군의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을 제고해 소방차 진입권한지역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매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훈련은 지난 20일 순찰차 포함 소방차량 5대와 소방공무원 20명이 참여 공설시장과 공동주택 등의 노선에서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령에 따른 긴급출동,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 및 계도 활동,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길 터주기 방법 안내 방송 등으로 진행되었다. 백성기 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골든타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동참해 남원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 영농철 농촌일손 돕기 실시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지사장 김태호)와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는 최근 장수군 계남면 사과농장을 찾아 사과 적과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적극적인 영농지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려는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네트웍스 및 장수군지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눈꽃따기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손돕기에 직접 참여한 김태호 지사장은 "추가적인 영농차량 무상점검은 물론 노후 농가수리 등 환경개선공사,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지사협, 저소득층 청소년에 교통카드 지원

전주시 인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혜) 이하 지사협)가 지난 21일 통학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카드를 지원했다. 이날 지사협은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교·대학생 20세대에 걸쳐 각각 1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마미비 교통카드'를 전달했다. 정진혜 위원장은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작지만, 교통카드가 보탬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이 학비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행복한 인후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